

## 가정예배문

감사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 조용한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1)

인도자

## 찬 송

301 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같이

## 대표기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중

## 성경봉독

데살로니가전서 5:16-18 (개역개정)

인도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말 씀

감사가 우리 가정을 세웁니다

인도자

**첫째,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감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서운했던 말보다 고마웠던 일을 먼저 떠올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쌓일수록 가정은 더 따뜻해집니다.

**셋째, 감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것을 믿으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와 감사로 걸어갑시다. 감사하는 가정 위에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 함께 나눔

올해 우리 가정에서 가장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

## 공동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 년 한가위를 맞아 우리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수고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과 건강을 더하시며, 멀리 있는 가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찬 송

559 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같이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같이

## 성묘예배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 기 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1)

인도자

## 찬 송

488 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같이

## 대표기도

고인의 삶을 기억하며 남은 가족의 믿음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중

## 성경봉독

요한복음 11:25-26 (개역개정)

인도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말 씀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인도자

오늘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묘는 죽음 자체를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의 길을 마친 이를 감사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약속을 붙듭니다.

**둘째, 기억은 오늘의 삶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고인이 남긴 사랑과 수고를 떠올리며 남은 가족이 서로를 더 아끼고 돌보아야 합니다. 미루었던 화해가 있다면 손을 내밀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말로 전합시다.

**셋째, 우리는 남은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슬픔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서로를 붙들고 걸어가기 바랍니다.

## 공동기도

다같이

생명의 하나님, 추석 명절에 고인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시간과 사랑을 귀하게 간직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남은 날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찬 송

491 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같이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같이

※ 성묘예배는 고인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고인을 기억하며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